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금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형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유대인들을 피해 모든 문을 잠그고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스승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풍랑이 부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고요함을 선물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함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없던 토마스 사도는 동료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라며 부활에 대한 불신과 완고함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토마스에게 예수님은 다시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6)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믿게 만드십니다.

사도들의 예수님 부활 체험과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초대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필요한 것을 저마다 나누어 쓰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빵을 떼어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호감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체험은 사도들에게 두려움을 기쁨으로 불안함을 평화로 바꾸어 주었고, 기쁨과 평화는 예수님의 사명을 초대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믿음이 있었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아끼는 사랑이 있었으며,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체험한 이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기르는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파견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계속해서 새로운 이들에게 전달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욕심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 체험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마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또한 부활 체험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공동체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 체험을 한 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을 이끄셨듯이 기도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도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못 자국을, 창에 찢린 옆구리를,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춘양 본당 김요한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지닌 새사람으로 거듭나길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시다.

입당성가 :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본기도

†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2장 42절-47절

안 내 :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의 부활로 희망을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박한 모습으로 함께 지내며 자신의 재물을 나누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웃에게 호감을 주었던 그들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 베드로 1서 1장 3절-9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생한 희망을 주셨으니, 얼마 동안 시련을 겪겠지만 즐거워 하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썩어 없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물질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장 19절-31절

강 론 : “평화가 너희와 함께!”(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문을 잠궈놓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과
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를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

<침묵>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썩지 않을 상속 재산을 주셨습니다.

<침묵>

시련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용기를 내라고
당신이 안고 오신 생명의 힘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침묵>

주님의 크신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 공소사목 성금

김옥이님	100,000원	노재선님	50,000원
와룡공소	100,000원	이용섭님	50,000원
이성우님	300,000원	성유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98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우곡성지 미사 안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일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673-4152 FAX 054-673-7094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4월 23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의성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우리농 목성동 장날

‘입새달에 만난 맛난 봄나물장’

- 일시 : 4월 23일(주일), 4월 30일(주일)
10:30 - 15:30
- 장소 :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앞
- 문의 : 054-856-0127(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 ※ “우리농 장날에 요리교실” 함께 진행
참가비 5,000원(재료비 포함) / 선착순 30명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4월 24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오순실 마리아(마산교구)

■ 교구 청년 단합대회

- 일시 : 4월 30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안동교구 내 본당 청년, 대학생
- 참가비 : 1인 10,000원

■ 2017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3일(수) 09:00 - 15:00
- 장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윗놀이,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북부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 일시 : 5월 6일(토) - 7일(주일)
- 장소 : 무학연수원 및 대구 대신학교
- 대상 : 2017년 예비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
- 회비 : 1인 20,000원

■ 대신학생 부모모임

- 일시 : 5월 20일(토) - 21일(주일)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3일(부활 제2주일) : 영덕 본당
- 4월 30일(부활 제3주일) :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 2017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기쁨과 아름다움

126. 혼인에서 사랑의 기쁨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쾌락 추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면, 우리는 편협해져서 다른 종류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쁨은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확대시켜서, 쾌락이 사그라지는 단계의 인생에서도 다양한 것에 대한 맛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혼인의 기쁨은 심지어 슬픔 가운데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기쁨에는 혼인이 즐거움과 괴로움, 긴장과 휴식, 고통과 자유, 만족과 갈망, 좋은 일과 힘겨운 일을 함께 담고 있기 마련이지만 늘 우정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의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으로, 혼인한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주고 봉사합니다.”

127. 우정 어린 사랑으로 상대방의 ‘높은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육체적이거나 정서적 매력과는 다른, 상대방의 ‘높은 가치’는 우리 자신이 그 가치를 반드시 지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내면의 거룩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미적 감각이 빈곤해져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구매와 소유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람도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이기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의 자유를 빼앗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초월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본질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깊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하여도, 또는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매력이 없거나,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괴롭힌다고 하여도 그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거저 주려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28. 사랑의 미학적 체험은, 상대방이 병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외적인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를 목적으로 여기는 눈길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눈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그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흔히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종종 관심을 끌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 때 많은 상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불평과 불만으로 표출됩니다. “내 남편은 날 보지 않아. 그이는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해.” “내가 이야기할 때 제발 나 좀 쳐다봐줘!” “내 아내는 아이들만 바라보지 나는 쳐다보지 않아.” “우리 집에서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나를 보지도 않아.”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인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129.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의 기쁨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거라”(집회 14,16). 삶에서 가장 강렬한 기쁨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때에 생겨납니다. 이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요리사가 감사의 표시로 포옹을 받으며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아! 당신은 천사들을 기뻐 뛰놀게 할 거예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그들이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형제적 사랑의 결과인 이러한 기쁨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의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대방에게 전해져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30. 다른 한편, 기쁨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위험이 더 클수록, 승리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부부가 시련을 겪으며 함께 헤쳐 나가면, 그 노력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부는 좋은 것을 이루어 함께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에서 나오는 기쁨보다 더 심오하고 황홀한 인간적 기쁨은 없습니다.

- 다음에 계속 -



봄 밤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봄밤은 너그럽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온 사람에게 봄밤은 어깨를 움츠리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꽃이 있는 밤은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밤의 물가에 봄꽃이 날리는 풍경은 보는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꼭 그런 날, 시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중에도 달의 복채를 놓지 않는 노 시인이 오늘 모임의 좌장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휴화산이라 우기는 처용 아내도 꽃을 피우듯 붉은 치장을 하고 앉았습니다. 두 분 노 시인을 둘러싸고 그 분들을 따르는 중년의 제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출한 음식과 향기로운 차를 나눠 마시며 詩시한 봄놀이에 들 채비를 합니다.

물가에 어둠살이 내리고 먼데 불빛이 하나 둘 제자리를 밝힙니다. 봄꽃 화관을 둘러 쓴 그네들이 시를 노래합니다. 달북 시인이라 이름 붙은 노시인의 시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제자가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봄밤의 문을 엽니다. 채와 북 사이 동백꽃 지는 풍경을 눈앞을 스칩니다. 달을 소리북이라 칭한 시인이 미친 향기의 복채를 휘두르면 똑똑똑 동백꽃 집니다. 듣는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그시 눈을 감기도 합니다. 모가지째 똑똑 떨어지는 동백나무 아래 선혈의 천둥 지나갑니다. 손을 약하게 떠는 시인이 자신의 시를 그윽한 눈빛으로 음미합니다.

뒤이어 처용 아내란 별칭이 붙은 시인이 자신이 쓴 ‘휴화산이라예’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소예, 지는 안죽도 용암이 펄펄 끓고 있어예. 시들긴 했지만 지도 철따라 피었다 지는 꽃이라예. 봄비는 추적추적 임발자국 소리 걸고 벚꽃 잎은 한숨지미 떨어지는데 혼자 지셀라카이 적막강산 이라예. 봄밤이라예. 안그래예?”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는 칠순을 훌쩍 넘긴 그녀가 불현 듯 아름답게 보입니다. 작은 그녀의 어디에서 용암 같은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꽃을 닮은 시들이 봄밤을 수놓는 동안 우리는 모두 꽃나무 아래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따스고 눈빛은 곱습니다. 봄꽃 향기는 아무래도 귀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머리에 화관을 쓴 그네들의 입술에 봄이 가득합니다. 시를 뿜어내는 그네들의 입술이 꽃밭입니다. 봄꽃을 파종하는 밤의 물가는 안온합니다. 순한 눈빛을 지닌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동철씨를 떠올립니다. 제가 사는 마을엔 갓 신을 넘기고도 훌쩍 늘어버린 동철씨가 있습니다. 그의 밥은 막걸리입니다. 날마다 자전거 짐칸에 빈 사과상자를 싣고 읍내에 막걸리를 사러갑니다. 낮 동안 아침나절에 사온 막걸리 병을 혼자서 다 비우고 나면 해거름에 또 다시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섭니다. 저녁밥 대신 마실 막걸리가 필요해서입니다.

동철씨에게 막걸리는 친구입니다. 여태 장가를 들지 못한 그는 노모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삽니다. 가끔 들르는 다방 아가씨가 있긴 하지만 무슨 약속을 한 사이는 아닌가봅니다. 스무 가구 남짓 모여 사는 마을에는 동철씨와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까지 튀겨가며 남의 일에 참견하길 좋아하는 그를 아무도 가까이 하려 않습니다. 그의 입은 갈수록 거칠어져서 괜히 아는 체를 했다간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그런 그에게 막걸리는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며 애인입니다.

동철씨에게 막걸리가 아니라 詩동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수시로 혼자 말을 내뱉는 그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시라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집 앞을 지나다 개가 짖으면 들어와 멍멍이와 놀다가는 속은 따뜻한 동철씨에게 해 줄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음번엔 시모임에 함께 하자고요. 뜬금 없이 나타난 그로 인해 조용하던 자리가 좀 어수선히질지 모르지만 말입니다.